



클로즈·업

慶尙北道副知事 李炳柰씨

◎... 경상북도 부지사겸 한국기생충박멸협회 경상북도 지부장이기도 한 李炳柰씨—.

굵은 안경넙으로 보이는 그의 눈매에는 어떤 叡智가 번뜩인다. 선이 굵은 그의 용모에서는 어떤 事物에의 정열과 신념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풍기는 멋진 체취이기에 名副知事로서, 名지부장으로서는 聲價가 드높은지도 모른다.

公과 私를 엄격히 구분, 公으로 다스릴 때는 엄하게, 私적으로는 자상하게 돌보아주는 李부지사의 인간성이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他 市道에 비해 경북의 경우 보사행정의 특성은 더욱 빛을 발휘한다.

道当局은 복지행정의 内実化를 기하기 위해 세 가지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영세민의 생활안정, 둘째 도민보건의 증진, 셋째 쾌적한 환경보건을 앞세워 도민건강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바탕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경북은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건의료대책의 강화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야만 좋은 결실을 맺듯이 보건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강력한 의료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의료시혜의 확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중점적인 확충을 꾀할 생각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보호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고, 둘째로는 이동병원을 운영하여 산간벽지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까지에도 고루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보건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만성전염병관리는 물론이고 기생충관리, 결핵없는 마을조성 등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李부지사의 논리에서 경북도의 보사행정은 정말 잘 되겠구나를 기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다.

— 건강관리사업 및 기생충구충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현재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망의 주된 원인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으나 지금은 비전염성 만성질환, 즉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이 주 원인이 되어 죽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병들은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하여 불치의 상태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관리협회의 발족은 늦은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건협

건강증진을 위한 간담회 광경



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해 줄 작정입니다. 더구나 저렴한 의료수가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 당국의 견협에 대한 행정지원은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었다.

행정개통과 각종 조직을 통한 홍보강화, 의료보험조합을 통한 사업장 종사자의 검진계몽, 현지를 순방하면서 시군직원들의 검진계몽지원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미 목표량 6만 2천 5백명중 검사인원이 5만 5천 1백 50명을 검사해서 88.2%의 실적을 올렸고 그중 이상소견자 1천 1백 77 명을 발견하여 병의원등에서 조기 치료토록 조치하여 早期 발견 早期치료의 효과를 100% 거양하고 있었다.

『기생충관리사업도 이미 경북은 궤도상에 올라 있지만 88올림픽이전까지는 감염율을 0%를 목표로 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취약지구주민을 집중관리하여 전파경로를 차단하고 감염원 감소를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하천유역주민, 채소 다량재배지역주민, 오지주민 등을 주대상으로 삼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것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간디스토마 구충계획입니다.

9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8개군, 19개면, 19개동 주민 8,698명을 대상으로 구충계획을 세워 하천주민들의 고질적 풍토병인 간디스토마를 깨끗히 없애버릴 작정이지요. 하하하하…….』

여유있게 웃으시는李부지사의 얼굴에는 일사불란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보건사업은 하나도 무서울게 없다는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 내가 健協지부장 아십니까? 도장만 찍는 지부장이 안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렵니다.

이미 道소유의 대형버스 1대를 견협에 무상 관리전환해서 순회검진 차량으로 사용토록 했고(건강 3호 검진차) 시장, 군수회의 때와 도간부회의, 또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는 내가 직접 검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홍보합니다. 또한 검진 가능성이 있는 시군에는 시장, 군수에게 직접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 있는 지부장님을 모시고 있는 경북지부팀은 과연 행복하구나를 기자는 느끼면서 名將 밑에 弱卒은 없는 법이라고 새삼 되뇌이면서, 그래서 경북지부는 최우수 지부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다.

◎…李炳柸부지사의 취미는 테니스, 夫人 白順姬여사와의 사이에 2男 1女. 晋州市長, 大田市長, 내무부監査官 등 요직을 거쳐 82년 6월 現職(慶北道 副知事)에 취임했다.